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와 테이블 치수의 특성

The Size Characteristics of Tables and Chiars used in Small Restaurants

김미란(Kim, Mi Ra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석사

오혜경(Oh, Hye Kyu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의 대상
- 2-2 연구의 절차 및 조사 방법

3. 소규모 음식점의 좌석 치수 특성

- 3-1 좌석 1인당 소요면적
- 3-2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의 치수
- 3-3 좌석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
- 3-4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 높이 사이의 치수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보다 나은 소규모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적 조사로 서울시에 있는 6개 대학 주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평(66㎡) 이하의 분식 또는 간단한 일식 및 한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48곳을 대상으로 좌석배치의 치수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음식점에서 1인당 좌석 면적을 보면 0.356㎡으로 최소 면적으로 제시한 0.371㎡보다 더 작았다. 그 범위는 작게는 0.285㎡에서부터 0.403㎡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소규모 음식점의 적절한 좌석배치의 치수를 규정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치수는 4인용 장방형의 600×900이었고, 가장 작은 치수는 440×750,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의 치수를 소규모 음식점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테이블의 치수라 한다면 600×900의 크기가 되어, 적어도 이에 준하는 크기가 소규모 음식점의 4인용 장방형 테이블의 치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 중 자리판의 크기는 270×270에서부터 430×430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400×400이었지만 이 역시 소수였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600×900의 테이블일 경우 자리판의 폭은 400이하가 되어야 옆 사람과의 최소한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사이의 높이는 270-300이 적당한데 조사 결과 270-300보다는 250-260이 더 많았고, 12명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설문해본 결과 적절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250-260의 크기도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수반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ze of tables and chairs in small restaurants. The examined objects were 48 restaurants serving flour-based, Korean style and Japanese style meals. Those restaurants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at six universities in Seoul, and their sizes are limited under 6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n small restaurants, the size of the seat for one person is 0.346㎡ on the average. The range of the size starts from 0.285㎡ to 0.403㎡, showing a great difference.
2. The most common size of tables in small restaurants is the oblong style of 600×900 for four people. The smallest size is 440×710, while the biggest one is 700×1000, showing a great number of variation. If the most common size of tables is set to be the general size of tables in small restaurants, it will be 600×900.
3. The sizes of the seats for chairs used in small restaurants start from 270×270 to 430×430. The most common size of the seats for chairs is 400×400, only showing a small number. For the cases of tables with the most common size of 600×900, the width of the seats for chairs should be under 400.
4. For the height between the table and the seats of the chair, the distance from 270 to 300 is relevant.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cases of the distance from 250 to 260 than that from 270 to 300.

(Keyword)

small restaurant, table size, chair siz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 한국에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힘입어 외식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외식업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 창업넷에 따르면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심업종을 조사한 결과 40-50대의 36%가 음식점을 선호할 만큼 외식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업종이다. 그러나 개업하는 숫자만큼 문을 닫는 숫자도 많아 창업을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밝혀지고 있다.

음식점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업공간이긴 하지만 식사를 하는 장소의 제곱이라는 단순한 역할만으로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음식점이 현재와 같이 넘쳐흐르는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한발자국만 옮겨도 보다 맛있고, 보다 분위기가 좋으며,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가격이 성공의 지름길이지만, 최근 들어 수많은 음식점이 난립하면서 맛과 가격 이외에 분위기,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중 대규모 음식점은 고객의 확보를 위해 시설을 대형화하고 편의 시설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구축하면서 균일한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를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편리함과 익숙함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소형 규모의 독립 음식점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크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은 대부분 재정적인 뒷받침과 정보의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애로가 있다. 물론 소규모이다 보니 가격만 싸면 고객은 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가격 지향적 경영자들도 있으나 점점 심해지는 판매경쟁 속에서 소규모 음식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는 기본이고 음식점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쾌적성이 부가가치를 높여주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음식점의 쾌적성 여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 실내의 분위기가 쾌적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 인식되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음식을 먹을 때 앉게되는 좌석과 관계된 치수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소규모 음식점은 대부분 박리다매의 성격이 강하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고객의 회전율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우선 테이블과 좌석수를 가능한 늘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치할 경우 공간이 협소해지는 것은 물론 사람과 사람이 쉽게 부딪치거나 접촉되어 쾌적성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배치된 의자와 테이블의 크기가 적정치수를 벗어날 경우, 치수가 작으면 고객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크면 그 만큼 고객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소규모 음식점 경영자들이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전문 디자이너에게 실내 디자인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다수는 비전문 시공업자에게 맡겨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음식점의 쾌적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좌석배치에 관계된 치수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 과연 이들 음식점의 좌석 치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 연구의 첫 단계로 필수적이지 않을까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나은 소규모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좌석에 관련된 치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소규모 음식점 좌석의 1인당 소요면적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소규모 음식점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 치수의 특성을 파악한다.
- 3) 소규모 음식점 좌석에 사용된 의자 치수의 특성을 파악한다.
- 4) 소규모 음식점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 높이 사이 치수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대상

대학교 주변은 활기 넘치는 젊음이 생동하는 곳으로서 학문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항상 대학가 주변은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주변사람들의 식사를 위한 음식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들 음식점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등 그리고 이를 세분화한 전문 음식점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학가에는 값싸고 질 좋은 소규모의 음식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의 좌석배치 실태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대학가 주변의 소규모 음식점을 선정하였다. 이들 소규모 음식점은 인건비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서비스나 실내 환경에 소홀한 곳도 있고 좋은 환경과 청결한 음식으로 승부하는 곳도 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이라도 고급의 전문 음식을 취급하는 곳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소위 분식점이라 일컬어지는 20평 이하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교는 남녀 공학인 대학교 3곳과 여자 대학교 3곳으로 선정하였는데, 음식점에 관한 선행연구 중 '고객만족과 식당 선호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¹⁾를 보면 고객만족의 요인 중 '식당 분위기 요인'에서 남자고객과 여자고객간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 대학교 지역과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간의 좌석배치 및 치수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나누어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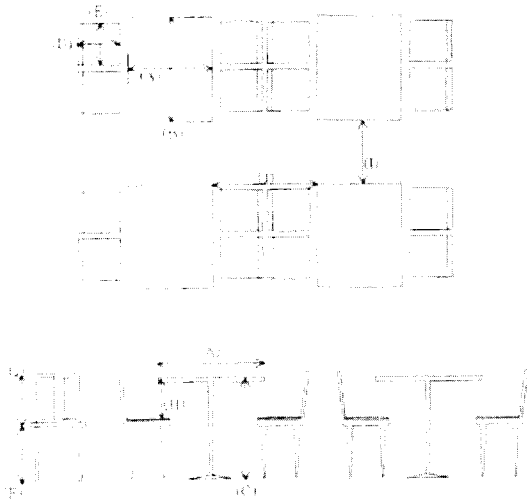
1) 윤용현, 고객만족과 식당 선호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대학가의 소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경상대, 2000

학교 별로 8사례씩 총 48사례이다.

- (1)A여자대학교 지역 : A1, A2, A3, A4, A5, A6, A7, A8
- (2)B여자대학교 지역 : B1, B2, B3, B4, B5, B6, B7, B8
- (3)C여자대학교 지역 : C1, C2, C3, C4, C5, C6, C7, C8
- (4)D대학교 지역 : D1, D2, D3, D4, D5, D6, D7, D8
- (5)E대학교 지역 : E1, E2, E3, E4, E5, E6, E7, E8
- (6)F대학교 지역 : F1, F2, F3, F4, F5, F6, F7, F8

2-2 연구의 절차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간의 디자인 실태를 조사하는 현장 방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조사내용은 먼저 좌석의 배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 테이블과 의자의 치수, 테이블과 테이블의 간격을 실측하였으며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테이블은 길이(A), 폭(B), 높이(C)의 치수를 측정하였고, 의자는 자리판의 길이(D)와 폭(E), 바닥에서 자리판까지의 높이(F), 자리판에서 등판 윗부분(G)까지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테이블에서 의자 자리판까지의 길이는 테이블 높이에서 의자의 높이를 뺀 치수(H)로 하고, 통로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폭(I)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자가 배치된 곳의 테이블과 테이블의 길이(J)를 측정하였고, 그 단위는 mm로 하였다.



<그림 2-1> 좌석의 치수

3. 소규모 음식점 좌석 치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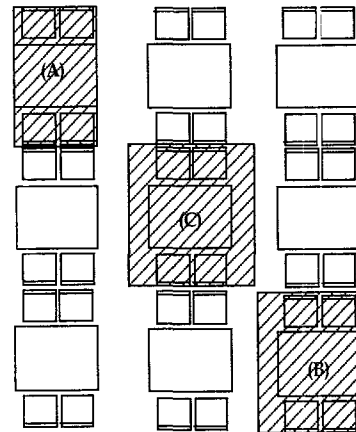
음식점의 평면을 계획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손님 이동공간과 함께 적절한 서비스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이고, 그 다음이 각 좌석의 테이블과 의자의 치수가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특히 무릎과 다리가 들어갈 의자 자리판에서 테이블까지의 공간은 고객이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수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는 시판하고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표준테이블의 치수는 적합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와의 관계 및 통로 등의 치수를 알아보았다.

3-1 좌석의 1인당 소요면적

소규모 음식점 좌석배치 치수 중 손님 1인당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3-1> 1인당 면적의 산출 방법

- (A): (테이블 길이+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길이)×테이블 폭÷4
- (B): (테이블 길이+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길이)×(테이블 폭+통로 길이)÷4

좌석부분의 1인당 면적을 산출하려면 (C)의 그림대로 해야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 테이블 양옆으로 통로가 있는 경우는 그 사례가 적고 (B)의 그림대로 배치된 사례는 거의 모든 음식점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통로 포함 좌석 면적을 산출할 때 (B)의 배치방식을 따랐고 1인당 통로제의 좌석 면적을 산출할 때 (A)의 방식을 따랐다.

이에 따른 통로제의 1인당 소요면적을 보면 평균 0.346㎡이었다<표 3-1>. D대학교 지역이 0.403㎡로 가장 넓고, A대학교 지역이 0.285㎡로 가장 좁다. 그러나 통로면적은 A대학교 지역이 0.226㎡로 가장 넓었다. 또한 D대학교 지역은 통로 면적이 0.167㎡로 평균인 0.161㎡에 근접하여 통로포함 면적이 가장 넓었다. E대학교 지역은 통로를 제외한 좌석면적이 평균인 0.346㎡이었으나 통로면적이 0.127㎡로 가장 좁아 결과적으로 통로포함 면적이 가장 좁았다. 이를 보면 A대학교 지역의 음식점은 좌석면적에 비해 통로가 넓어 테이블의 크기를 늘리는 등의 좌석 면적을 보다 넓게 할 필요가 있고, E대학교 지역은

2) Julius Panero & Martin Zelnik 이출섭 역, 인체공학과 실내공간, 미진사, 1996 p.209

통로면적을 늘리는 것이 보다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공간의 한계로 인해 통로를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좌석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표 3-1> 소규모 음식점 좌석의 1인당 면적

문헌	여자 대학교			평균 (㎡)	남녀공학 대학교			평균 (㎡)	전체 평균 (㎡)
	A	B	C		D	E	F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1인당 면적 (㎡)									
통로 제외 A	0.285	0.333	0.364	0.327	0.403	0.346	0.345	0.365	0.346
통로 포함 B	0.511	0.477	0.513	0.500	0.570	0.473	0.500	0.514	0.507
통로 면적 B-A	0.226	0.144	0.149	0.173	0.167	0.127	0.155	0.149	0.161

한편, 여자 대학교와 남녀공학 대학교를 비교해 보면 통로를 제외한 1인당 면적에서 여자 대학교 지역의 음식점이 0.327㎡로 전체평균 0.346㎡보다 더 좁고,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의 음식점이 0.365㎡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B)에서 (A)를 빼면 통로의 면적이 나오는데, A대학교 지역이 1인당 통로면적 0.226㎡로 가장 넓고, E대학교 지역이 0.127㎡로 가장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자 대학교 지역에는 좌석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작으나 통로가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에는 1인당 좌석 면적은 넓으나 통로의 면적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3-2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의 치수

음식점에서 테이블은 용도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여야 한다. 이는 테이블에 올라가는 식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의 치수를 문헌을 통해 조사해 보았더니 <표 3-2>와 같이 나타났다.

<표 3-2> 음식점 좌석의 치수

문헌	테이블 종류 (길이×폭)	2인용	4인용		6인용
		장방형	정사각형		원형
			장방형	정사각형	
실내디자인 각본	테이블치수 (길이×폭)	800×650	800×1250	850×850	800×1750
음식점의 가구·수납	테이블치수 (길이×폭)	600×500	600×900	600×600	600×1350
건축계획	테이블치수 (길이×폭)	600×600	600×1100	750×750	750×1500

문헌	테이블 종류 (길이×폭)	2인용	4인용		6인용
		장방형	정사각형	원형	
Interior Design	테이블치수 (길이×폭)	610×610	762×1220	762×762	-
건축설계 계획본	테이블치수 (길이×폭)	750×600	750×1200	-	-
인체공학과 실내공간	테이블치수 (길이×폭)	762×610	762×1219	-	-
인체척도에 의한 실내공간계획	테이블치수 (길이×폭)	800×800	900×1200	900×900	900×1500
최소 테이블 치수 (길이×폭)		600×500	600×900	600×600	600×1350

분석에 준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그 좌석의 치수에서 비교적 최소에 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조사된 치수 중 길이와 폭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선정하여 테이블의 최소 치수로 규정해 보았더니 '음식점의 가구·수납'에서 제시한 치수가 2인용·4인용·6인용 각 테이블의 최소 치수였다.

<표 3-3>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된 테이블의 치수(길이×폭×높이, 단위:㎝)

문헌	테이블 종류 (길이×폭×높이)	2인	4인	6인	
		장방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A 대학교	600×600×600 600×600×700	500×800×690	550×800×690	-	-
		600×820×700	600×900×690	-	-
		600×900×700	600×900×700	-	-
		600×900×710	-	-	-
		600×900×710	-	-	-
B 대학교	600×600×720	500×800×680	540×850×690	-	-
		580×880×700	600×900×680	-	-
		600×900×690	600×900×700	-	-
		600×900×700	600×900×700	-	-
		600×1000×720	-	-	-
C 대학교	600×600×720 600×600×700	440×750×630	500×900×720	-	-
		500×1000×700	600×900×690	-	-
		600×900×700	600×900×700	-	-
		600×900×700	600×900×700	-	-
		700×1000×720	-	-	-

	2인	4인	6인	
			직사각형	원형
남녀공학대학교	D 대학교 600×600×710	500×900×700	600×1215×700 600×1220×700	- - - - - -
		600×900×700		
		600×900×700		
		600×900×700		φ 750×700
		600×900×700		φ 900×700
		600×900×700		φ 1000×700
		600×900×730		
		650×900×700		
남녀공학대학교	E 대학교 -	500×800×670	500×1250×680 600×1210×680	-
		500×800×700		
		500×800×700		
		500×860×680		
		520×800×680		
		600×900×680		
		640×940×700		
F 대학교 -	-	500×800×690	600×1400×700	-
		540×850×700		
		600×800×740		
		600×890×700		
		600×900×700		
		600×900×700		
		600×900×710		
	6종류	44종류	5종류	3종류
계	58종류			

한편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된 테이블을 조사한 결과 그 종류는 2인용, 4인용, 6인용이 쓰였으며, 그 중 4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인용 중에서 정사각형은 한군데도 없었고 주로 장방형의 4인용 테이블이었다. 조사된 테이블의 치수는 <표 3-3>과 같다.

이를 보면 먼저 2인용 테이블은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보다는 여자 대학교 지역에서 많이 쓰였고, 6인용 테이블은 여자 대학교 지역보다는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는 식사를 하러 오는 그룹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즉, 여대생들은 다수가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보다는 2인이나 4인 그룹이 더 많지 않은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치수를 보면 2인용 테이블은 모두 600mm×600mm(이하 단위 생략)의 정사각형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는 <표 3-2> 건축계획에서 제시한 600×600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치수이긴 하지만 음식점의 가구·수납에서 제시한 600×500의 최소 치수보다 약간 큰 치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표 3-2>에서 음식점의 가구·수납에서는 600×600이 4인용 정사각 테이블의 치수라 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 600×600은 모두 2인용 테이블로 쓰이고 있었다.

그 다음 4인용 테이블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가장 작은 치수가 C대학교 지역의 440×750이고, 가장 큰 치수는 700×1000으로 역시 C대학교 지역에서였다. 한편 가장 많은 숫자는 600×900으로 총 22사례였고 이는 4인용 테이블 44사례의 50%가 된다. 이를 <표 3-2>와 비교해보면 음식점의 가구·수납에서 제시

한 최소 치수인 600×900과 일치된다. 그 외에는 500×800이 7사례였고 500×900, 540×850이 각각 2사례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500×1000, 540×850, 580×880, 640×940 등 다양한 치수가 나타났다. 한편 500×800은 7사례 중 E대학교 지역에서 4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들 치수를 종합하여 보면 길이가 440-650이고 폭이 750-1000까지로서 조시대 상 소규모 음식점의 4인용 테이블 치수 범위는 (440-650)×(750-1000)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치수는 600×900이었으므로 이를 보편적이라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소규모 음식점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는 치수가 아닐까 한다.

6인용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면 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4인용보다는 치수의 범위가 훨씬 좁아서 (500-600)×(1210-1400)이었으며, 500×1250이 최소 치수였고 600×1230 정도가 대략적으로 그 평균치수가 된다. 이를 <표 3-2>와 비교해보면 길이는 같으나 폭이 1350이 되어야 하지만 1230으로 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6인용 테이블은 문헌조사의 최소 치수보다 작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은 크기가 커질수록 문헌에 의한 최소치수보다 더 작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역시 면적이 좁은 곳에서 박리다매의 성격이 강한 음식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한편 이들 6인용 테이블은 전부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2인용 테이블이 여자 대학교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여자 대학교 지역이 인원수에 따라 유동성 있는 좌석구성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테이블은 D대학교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는데, 그 치수를 보면 지름이 750, 900, 1000 등으로 약 4인-6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형테이블은 사각테이블보다 주변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소규모 음식점에는 잘 쓰이지 않는 테이블 반영하듯 한 음식점에 1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장방형의 크기가 작은 테이블이 주로 사용된 공간에서 하나의 변화를 주는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테이블의 높이는 630에서 740까지 그 편차가 매우 높았는데 700이 58사례 중에 30사례로 52%가 되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700이 소규모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된 테이블의 높이이다. 최소 높이가 630은 C대학교 주변이었고 최대 높이인 740은 F대학교 지역이었다. 테이블의 높이는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과 여자 대학교 지역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는데, 높이가 700인 테이블은 D대학교 지역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고, E대학교 지역에서는 680이 많았다.

테이블의 높이는 높이 그 자체보다는 의자 자리판 높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므로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3-3 좌석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

- 4) 2인용 테이블 : 문헌에서 제시한 최소치수 - 600×500
조사결과 평균치수 - 600×600
- 4인용 테이블 : 문헌에서 제시한 최소치수 - 600×900
조사결과 평균치수 - 600×900
- 6인용 테이블 : 문헌에서 제시한 최소치수 - 600×1350
조사결과 평균치수 - 600×1230

3) 이광노외, 건축계획, 문운당, 1995 p.289

의자는 누구나 다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안함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무척 어렵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소규모 음식점 의자의 치수를 분석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표준체위로서의 치수를 참고로 하여 산출해 보았다.

먼저 자리판 길이의 치수를 보면 앉은 엉덩이 오금길이(엉덩이 끝에서 무릎 뒤의 아랫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사용되는데, 국민 표준 체위조사⁵⁾에 따르면 18-24세가 남자 472mm, 여자 452mm이며, 25-39세는 남자 462mm, 여자 448mm이다. 두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남자 467mm, 여자 450mm이다. 이 치수에다 사용자의 자세변화를 고려하여 40mm정도⁶⁾ 짧은 410mm-427mm이 적절한 의자 자리판의 길이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적절한 자리판의 폭을 알기 위해서는 앉은 엉덩이 너비의 치수가 사용되는데, 국민 표준 체위조사에 따르면 18-24세가 남자 341mm, 여자 337mm이며, 25-39세는 남자 348mm, 여자 340mm이다. 두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남자 344.5mm, 여자 338.5mm이다. 이 치수에다 옷 두께와 여유치를 가산⁷⁾하여 보면 적절한 의자 자리판의 폭은 408.5mm-414.5mm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한 사항은 바닥에서부터 의자 자리판까지의 높이인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너무 높은 의자에 앉게 되면 두 발이 적절하게 바닥에 닿지 않아 신체의 균형이 상실될 것이고, 그 반대로 낮은 의자에 앉게 되면 다리를 앞으로 뻗치게 되거나 몸체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어 불안정해진다.

적절한 의자 높이를 결정하는 데는 앉은 자세에서의 오금 높이(바닥에서부터 무릎 바로 뒤 넓적다리까지의 수직거리)가 사용되는데, 국민 표준 체위조사에 따르면 18-24세가 남자 414mm, 여자 387mm이며, 25-39세는 남자 409mm, 여자 383mm이다.

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http://standard.ats.go.kr>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단위: cm)

측정항목	남				여			
	PERCENTILE			MEA	PERCENTILE			MEAN
	5%	50%	95%	N	5%	50%	95%	
키	161.9	171.5	180.3	171.4	151.8	160.3	168.1	160.0
앉은 무릎 높이	47.3	51.2	55.2	51.2	44.2	47.5	50.6	47.4
앉은 오금 높이	38.4	41.3	44.7	41.4	35.6	38.7	41.6	38.7
앉은 엉덩이 오금 길이	43.2	47.3	51.1	47.2	41.2	45.2	49.3	45.2
앉은 엉덩이 너비	30.6	34.0	38.0	34.1	30.5	33.8	37.0	33.7
키	162.6	170.8	179.2	170.9	150.8	158.5	166.8	158.4
앉은 무릎 높이	46.8	50.7	54.6	50.7	43.6	46.8	49.9	46.8
앉은 오금 높이	37.6	40.8	44.2	40.9	35.3	38.3	41.2	38.3
앉은 엉덩이 오금 길이	42.8	46.8	51.0	46.2	41.0	44.9	48.4	44.8
앉은 엉덩이 너비	31.5	34.8	38.4	34.8	30.9	34.1	37.0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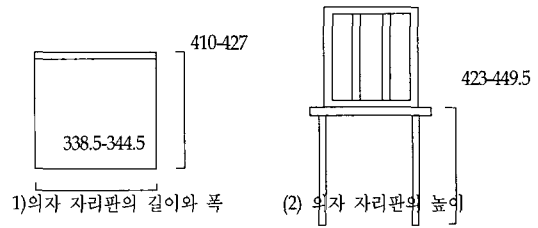
6) 산업자원부, 한국인 인체측정 및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998, p.148

7) 산업자원부, 한국인 인체측정 및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998, p.149

의자 자리판의 폭=앉은 엉덩이 너비+2×옷두께(5mm)+2×여유치(최소 30mm)

두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남자 411.5mm, 여자 385mm이다. 이 높이에 구두의 높이 38mm⁸⁾을 가산하면 423mm-449.5mm가 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의자 자리판의 높이를 423mm-449.5mm로 본다.



<그림 3-2> 의자의 치수(단위:mm)

본 연구에서 조사한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를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단위:mm)

		사각형 자리판 길이×폭×자리판 높이 (등받이를 포함한 높이)	원형 자리판 지름×자리판 높이 (등받이를 포함한 높이)
A 대학 교		270×270×400	φ 300×460
		390×340×450(650)	φ 300×460
		430×420×450(900)	φ 400×430(900)
		430×430×450(850)	φ 400×430(910)
B 대학 교		380×390×450(750)	
		400×400×440(900)	φ 320×470
		380×400×430(840)	φ 320×470
		400×380×440(750)	
C 대학 교		400×380×150	φ 320×500
		400×380×470	φ 380×450
		400×390×430(860)	φ 400×440
		400×400×400	φ 400×400
	400×400×450(900)		

8) Julius Panero & Martin Zelnik 이출섭 역, 인체공학과 실내공간, 미진사, 1996, p.52

	사각형 자리판 길이×폭×자리판 높이 (등받이를 포함한 높이)	원형 자리판 지름×자리판 높이 (등받이를 포함한 높이)		
남 녀 공 학 대 학 교	D 대 학 교	380×340×440(800)	φ 300×500	
		400×370×450(850)	φ 360×460	
		400×400×450(800)	φ 380×440(900)	
		420×330×440(950)	φ 400×430(800)	
	E 대 학 교	430×430×440(920)	φ 300×460	φ 300×470
			φ 360×440(850)	φ 370×450
			φ 370×450(950)	φ 380×450(700)
			φ 380×450(700)	
	F 대 학 교	370×350×420(840) 370×350×450(850) 370×390×450(930) 400×300×450(800) 400×360×450(800) 400×300×450(800) 400×400×450(820) 400×400×450(880)		

의자도 테이블처럼 음식점에서 사용된 종류가 다양해 치수 또한 다양하였는데 의자 자리판 형태를 보면 사각형과 원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사각형 자리판의 길이와 폭의 크기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치수가 400mm×400mm(이하 단위 생략)으로 6사례이었고, 그 다음이 3사례에서 사용된 400×380이었다. 그 외에는 매우 다양한 치수가 사용되었는데 400×390, 400×380, 400×370을 비롯하여 400×430, 380×390, 390×340, 370×350등 각각 다른 크기의 의자 자리판이 사용되고 있어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 A대학교 지역에서 사용된 270×270이고, 가장 큰 것은 A대학교와 E대학교 지역에서 사용된 430×430으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즉, 270×270과 430×430은 160×160의 차이가 있어 매우 의외였다. 물론 270×270의 크기는 여자 대학교 지역이었고, 430×430은 남녀공학 대학교 지역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차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대학가 주변의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된 의자 자리판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서 각 음식점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자리판을 가진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들 모든 의자의 자리판에서 표준 체위조사의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 제시한 의자의 크기인 (410-427) × (408.5-414.5)에 속하는 의자를 사용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시 길이와 폭의 비율로 보면, 총 27사례 중 길이가 폭보다 큰 의자는 15사례였고, 폭이 길이보다 큰 의자는 3사례, 길이와 폭이 같은 의자는 9사례로 대부분의 의자는 길이와 폭이 같거나 길이가 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된 의자의 길이와 폭은 평균 약 393×375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치수인 410-427×408.5-414.5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치수이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의 길이

와 폭은 의자의 적정치수에서 길이는 17-24 폭은 33.5-39.5 정도 미달되는 크기였다.

그 다음으로 원형 자리판의 의자를 보면 이 역시 사각형 자리판과 같이 매우 다양하여 지름이 최소 300에서부터 400까지로 320, 360, 370, 380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중 지름 400이 4사례, 300이 5사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 차이가 많았다. 특히 사각형 자리판 의자의 경우 300에 가까운 치수는 매우 소수였음에 비해 원형 자리판의 의자는 300이 5사례나 있고, 320도 3사례 있어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원형 자리판의 의자는 비교적 작은 치수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의자의 높이는 자리판까지의 높이와 등받이까지를 포함한 높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음식점에서는 등받이는 낮게 하고, 스틸이나 아크릴 등의 투명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넓어 보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요리가 제공되는 고급 음식점이라면 식사하는 시간도 길어지므로 등받이의 높이가 높은 편안한 의자가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주문하여 나오는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음식점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으며 고객의 회전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등받이가 높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된 의자의 등받이까지 높이는 800의 중간 높이부터 950의 비교적 높은 등받이까지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었다. 실제 소규모 음식점에서 950정도 높이의 의자가 사용되면 의자 등받이가 테이블 위로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이것은 시각적으로 많은 선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위로 너무 높이 올라오지 않는 등받이의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한 사례(17사례)도 있었으며 의자 대신 벽을 따라서 벤치시트를 설치한 사례(1사례)가 있었다. 벤치시트 앞에는 사각테이블을 배치하였는데 필요에 따라 2-3개의 테이블을 붙여 단체 손님을 위한 자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다. 벤치시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의자와 같은 관점에서 길이와 높이 등을 계획해야 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바닥에서 자리판까지의 높이가 480으로 비교적 높았다. 의자 자리판의 높이는 앉은 자세에서 매우 중요한데 자리판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다리가 닿지 않고, 너무 낮으면 족바라 앉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표준체위를 중심으로 제시한 적정 치수인 423-449.5를 적당하다고 보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된 의자의 높이를 조사한 결과 사각형 의자와 원형 의자의 총 47 사례 중 13사례(27.7%)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적정 치수 보다 약간 높은 450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20사례였고, 그 외에 470, 460, 440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450을 적정 치수에 포함시킨다면 적정치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의자는 70%가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의자 자리판의 높이는 비교적 적정한 치수였다. 그러나 C대학교 지역에서는 의자 자리판의 높이가 500인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400의 치수도 있어 다양한 높이의 의자가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3-4 좌석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 높이의 차이

의자와 테이블 각각의 치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음식을 먹을 때에는 테이블에서 의자 자리판의 높이까지가 편안한 거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관한 치수로 인간공학에 의거한 KS의 자료에서 제시한 치수는 270mm-300mm(이하 단위 생략)이다.

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의 치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범위에 속하는 사례는 17.4%(8사례)로 적당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조사 결과 제시된 적정 치수보다 적은 250-260의 범위에서 그 사례가 많았는데 특히 F대학교 지역에서 250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테이블에서 의자 자리판의 높이까지가 250인 음식점에서 식사중인 손님 12명(남자 7명, 여자 5명)을 대상으로 적절함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의 두 가지 유형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10명(남자 5명, 여자 5명), '적절하지 않다'가 2명(남자 2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키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조사이긴 하였으나 250도 실제로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족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여 테이블에서 의자 자리판의 높이가 250부터 적절한 치수라고 가정한다면 250-300인 음식점은 56.5%(26사례)가 된다.

<표 3-5>소규모 음식점 좌석의 테이블 높이-의자 자리판 높이(단위:mm)

	여자 대학교				남녀공학 대학교			소계	총계 (N(%))	
	A 대학교	B 대학교	C 대학교	소계	D 대학교	E 대학교	F 대학교			
테이블 높이	250 미만	220	210	220	9	200	220	240	8	17 (37)
		230	230	220		220	240			
		240	240	230		240	240			
250-260	250-260	250	260	250	8	250	250	250	10	18 (39.1)
		260	260	250		260	250			
		260	260	250		260	260			
270-300	270-300	270	270	270	6	270		300	2	8 (17.4)
		270	270	280		300				
300 초과	300 초과							310 340	320	3 (6.5)

한편 250 미만이 17사례가 있었고, 300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어 거의 반 정도의 음식점에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의자 자리판에 비해 테이블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몸이 긴장하게 되는데, 식사 시간이 비교적 짧은 패스트푸드에 가까운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의 높이가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도록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다 나은 소규모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적 조사로 서울시에 있는 6개 대학 주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평(66㎡) 이하의 분식 또는 간단한 일식 및 한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48곳을 대상으로 좌석배치의 치수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음식점에서 1인당 좌석 면적을 보면 0.356㎡로 최소 면적으로 제시한 0.371㎡보다 더 작았다. 그 범위는 작게는 0.285㎡에서부터 0.403㎡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의 치수가 작거나 또는 좌석의 배치 길이가 짧아서 오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통로는 평균 0.161㎡로 적게는 0.127㎡로부터 많게는 0.226㎡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소규모 음식점의 적절한 좌석배치의 치수를 규정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치수는 4인용 장방형의 600×900이었고, 가장 작은 치수는 440×750, 가장 큰 치수는 700×1000일 정도로 그 편차가 많았다. 이들 테이블의 크기는 음식점의 공간과 수용하려는 좌석 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40×750은 지나치게 작은 치수로 이러한 테이블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계몽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의 치수를 소규모 음식점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테이블의 치수라 한다면 600×900의 크기가 되어, 적어도 이에 준하는 크기가 소규모 음식점의 4인용 장방형 테이블의 치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의자의 치수 중 자리판의 크기는 270×270에서부터 430×430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400×400이었지만 이 역시 소수였다. 의자 자리판의 크기는 테이블 상판 폭의 크기에 따라가야 하므로 테이블의 폭이 길면 자리판의 폭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600×900의 테이블일 경우 자리판의 폭은 400이하가 되어야 옆 사람과의 최소한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규모 음식점에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자리판사이의 높이는 270-300이 적당한데 조사 결과 270-300보다는 250-260이 더 많았고, 12명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설문해본 결과 적절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250-260의 크기도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수반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음식점의 좌석치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좌석을 구성하는 테이블이나 의자의 치수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었다. 즉, 4인이 동시에 앉아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작은 테이블의 치수에서부터 넉넉한 치수까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의자 또한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음식점의 판매전략이나 경영자의 경영철학에 따라 그 치수가 다양해질 수 있으나 아무리 값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불편한 좌석의 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계몽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은 프랜차이즈화된 음식점과는 달리 경영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영자들이 테이블과 의자의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병남 외, 외식산업실무론, 지구문화사, 1999
2. 권선국 역, 음식점의 가구 · 수납, 건축시대, 2000
3. 구자영, 대학생의 외식형태 선호도 조사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김근중, 외식사업경영론, 대왕사, 2000
5. 나정기, 외식산업의 이해, 백산출판사, 1998
6. 산업자원부, 한국인 인체측정 및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998
7. 오영근, 인체척도에 의한 실내공간 계획, 국제, 1998
8. 윤용현, 고객만족과 식당 선호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9. 윤천근 외, 건축계획, 기문당, 2002
10. 이광노 외, 건축계획, 문운당, 1995
11. 이명우, 체인경영과 외식산업, 세림, 1999
12. 중앙 M&B, 소점포 인테리어, 중앙 M&B, 1998
13. 한국실대디자인학회, 실대디자인 각론, 기문당, 1997
14. 홍기운, 외식사업개론, 대왕사, 1999
15. 홍영란, 음식점의 객석배치와 착석심리연구: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실대디자인학회지, 1994. 4
16. Julius Panero & Martin Zelnik 이춘섭 역, 인체공학과 실내공간, 미진사, 1996
17. John F. Pile, Interior Design, 국제, 1997